

영광군, 명품 영광천일염 첫 생산채염행사 개최

천일염자연학습장에서 110여 명 참석 무사풍년 기원 “천일염 생산기반 개선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

영광군과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회장 강명수)는 지난 4월 22일 천일염자연학습장에서 오미화 도의원, 강필구 의장, 김강현 군의원,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한 천일염 생산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영광 천일염 첫 생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무사풍년을 기원하는 천일염 채염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국 생산량 2위를 자랑하는 영광 천일염 채염 행사는 국내 유일의 소금명을 가진 '소금이 산처럼 쌓인다'라는 '염산면'의 균유염전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영광 천일염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칠산 앞바다의 드넓은 갯벌을 품고 나갔다가 밀고 들어오는 청정바닷물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제조방식을 고집하여 생산하고 있어 천연미네랄과 알카리 성분은 풍부하고 염화나트륨 함량은 낮아 전국 어느 지역 생산 소금보다 높은 품질과 맛을 자랑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종만 영광군수는 “정부 지원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천일염 생산여건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해 염전 바닥재 개선,



소금생산시설 자동화 장비 보급 등 천일염 생산기반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품질의 명품 영광 천일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영광=박효중 기자

신안군 상징하는 군목 소나무→나한송으로 개정

신안군은 지난 19일 군의 상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신안군 상징 조례'를 개정하였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신안군의 군목을 기존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이유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신안군을 포함한 34개 시·군에서 소나무를 상징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징성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서다.

또한, 가거도의 자연 상태로 지리고 있는 수령 274년의 나한송은 군민들이 겪은 시련과 역경을 나타내 상징성을 더한다.

이런 점에서 '나한송'은 단순한 수목의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신안군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은 나한송을 군 상징목으로써 자리매김을 위해 신안군 지도읍에 나한송 4,500주를 심어 10리 길을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40리 길을 추가로 만들어 전체 나한송 50리 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명실상부한 군 상징목의 위엄을 나타내게 할 계획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제14기 무안농업인대학 개강

무안군은 지난 23일 무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 무안농업인대학 청년농업인과정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14기 무안농업인대학은 2개 과정(친환경농업, 청년농업인)에 60명의 교육생이 입학하였으며, 개강식 교육은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약 6개월간 과정별 전문기술 중심의 이론, 실습, 현장 견학 등 80시간의 일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과정은 기본적인 작물 재배 이론 교육과 농자재 제조 실습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주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농업인과정은 농장 브랜드화 및 스마트팜 적용 기술 교육 등으로 청년농업인의 농업 창업 및 경영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김항균 농촌지원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농업 분야 교육으로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유전체 분석 및 우량 암소 장려금 지원 등 우량 암소 개량 박차



함평군이 유전체 분석 사업 추진 및 우량 암소 장려금 지급 등 한우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한우 개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량 암소 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량 암소 사육 농가를 비롯해 함평축협, 전국한우협회 함평군지부에서 참석해 한우 혈통 개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함평군은 작년 12월 말 대비 우량 암소가 16두 증가해 현재 109두이며, 우량 암소 사

육 농가도 4개 농가가 더 증가한 32개 농가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우량 혈통 개량 가속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우량 암소 구입비 지원 사업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16개 농가 한우 1,333두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는 등, 이와 같은 노력을 힘입어 향후 관내 우량 암소 개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 귀농정착금, 세대주만 농어업인이면 지원

오늘 관련 조례 개정해 지원 조건 완화...내일부터 각 읍·면서 신청 접수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

영암군이 이달 26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2024년도 귀농정착금' 신청을 받는다.

귀농정착금은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2명 이상 영암군으로 전입한 세대에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제도.

25일 영암군은 귀농정착금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낱은 내용으로 (영암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전 귀농정착금은 65세 이하 세대주·세대원 모두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된 귀농·귀촌인만 지원해, 세대원이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지

급 대상 세대에서 제외됐다.

조례 개정으로 '65세 이하 세대주 농어업인'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 모두 귀농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세대주는 1년에 4개월 이내로 농어업 이외의 한시적 일자리에서 일해도 되는 새로운 규정도 추가했다.

귀농정착금을 원하는 세대주는 신청일 기준, 전입 2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초보 귀농·귀촌인이 영암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2024 서남권 뮤지엄페어

‘뮤지엄 나이트 투어’참여자 모집

목포자연사박물관이 오는 5월 4일과 5월 5일 이틀간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024 서남권 뮤지엄페어 <뮤지엄 나이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뮤지엄 나이트 투어>는 야간에 볼 꺼진 박물관 내에서 손전등으로 비추며 소장품을 관람하고,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면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뮤지엄페어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체험 쿠폰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목포자연사박물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총 240명을 신청받는다.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자연사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똑같은 공간이지만 야간에 관람하는 박물관은 관람객에게 신선함과 재미를 줄 것이다”면서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소장품에 대해 색다르고 깊이 있게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서남권 뮤지엄페어는 오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서남권 박물관·미술관 7개 기관이 참여해 뮤지엄그라운드 등 5종 20개 체험프로그램이 목포자연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목포자연사박물관 일원에 오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37일간 대형공룡전시(별론)과 야간조명이 설치돼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박물관을 밝게 비출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